

尹知敬傳의 作品樣相과 問題意識

余 世 柱

<목 차>

I. 序 論

II. 歷史의 小說化와 作家의 歷史認識

1. 歷史의 實相과 作品의 距離
2. 歷史認識의 水準과 觀點

III. 作品의 樣相과 歷史現實

1. 愛情葛藤과 作品樣相
2. 作家의 問題意識과 歷史現實

IV. 小說史의 價値

V. 論議의 要約과 남겨진 課題

I. 序 論

「尹知敬傳」은 中宗朝의 政治的 歷史現實의 一面을 지속적인 爭點으로 문제삼으면서, 한 인간이 그러한 시대적 와중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가 및 창작 연대를 알 수 없는 이 작품은 이와 같이 實在한 歷史的 事實을 小說化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눈길을 끄는 소설의 하나다.

그러나, 본 작품에 대한 연구는 기대수준만큼 활발하게 전개되지는 못했으며 단지 金起東, 金東烈, 安榮美의 대체로 간략한 論議들이 있을 뿐이다.¹⁾ 金起東 교수님의 概評과 金東烈님의 己卯土禍를 중심으로 언급한 作品의 歷史意識 檢討, 그리고, 安榮美에 의한 愛情과 王權葛藤의 分析은 이 작품이 여러 小說史나 文學史에서 거의 論及되지 않았음을²⁾ 감안할 때 상당한 成果라 아니할 수 없다. 金東烈과 安榮美의 연구는 작품분석을 통하여 金起東교수님의 概評을 실체적으로 檢證하려 했다는 데에 보다 큰 의의를 부여할 수

1) 金起東, 《李朝時代小說의 研究》(서울, 成文閣, 1978重版)와 金東烈, 古典作家의 歷史意識(東國大 교육대학원 碩士學位論文, 1981)과 安榮美, 朝鮮後期小說에 나타난 愛情과 王權의 葛藤(慶北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3)이 그것이다.

2) 趙東一 교수님의 《한국문학통사 3》(서울, 지식산업사, 1984)에서만 愛情小說의 한 樣相으로 언급되고 있다.

있다. 그런데 작품의 深層을 파헤쳐 세밀하게 분석하고 해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없지 않다. 金東烈은 주인공에 의해 짝퉁하게 언급되고 있는 己卯士禍만을 통하여 본 작품의 歷史意識을 검토하려 함으로써 극히 部分的인 作品理解에 머무르고 말았다. 安榮美의 논문은 작품 전체를 분석했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의의를 가지지만 갈등의 양상과 성격을 보다 깊이 있고 세밀하게 천착하지 못하여 피상적인 작품이해에 그친 듯하다. 그런 만큼 이들은 金起東교수의 개괄적 검토에서 크게 진전되지 못한 느낌이며, 여러 작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에서 본 작품을 검토한 까닭으로 보다 세밀한 작품분석에 천착하지 않았다.

이러한 實情에서 볼 때 「尹知敬傳」에 대한 자세하고도 깊이 있는 연구가 절실하게 요청되는 바이며, 이 논문의 研究動機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 논문은 본 작품이 中宗朝 歷史現實의 一面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 주된 關心을 두고 시도된다.

그러므로, 우선 歷史의 實相과 作品의 距離를 검토하면서 歷史의 小說化 정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작가의 歷史認識水準과 觀點 및 態度를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葛藤樣相의 보다 깊이 있는 分析을 통하여 作品樣相이 어떠한가, 中宗代의 歷史現實이 어떻게 문제되고 있는가를 밝히려 한다. 또한 마지막 작업으로 본 작품의 小說史的 價値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研究를 통하여 우리 古小說에 있어서 歷史小說에 관한 論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는 데에 이 논문의 궁극적 의의를 둘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本 論文에 사용된 作品資料는 筆寫本 「윤덕경전」³⁾임을 미리 밝혀 둔다.

II. 歷史의 小說化와 作家의 歷史認識

「尹知敬傳」은 中宗朝의 政治的 歷史現實을 제재로 삼으면서 많은 實存人物과 歷史的 事件을 虛構와 적절히 절충시켜 小說化하고 있다. 그래서 作家가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흥미있는 관심거리가 된다.

歷史的 實在와 作品과의 距離를 살펴보는 일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초작업이 될 것이다.

3) 筆寫本 古典小說全集 6권(서울, 亞細亞文化社, 1980) 所載.

1. 歷史의 實相과 作品의 距離

「尹知敬傳」의 인물 중에서 누가 實在했던 人物이고 누가 虛構의인 人物이며, 事件 중에서 어느 것이 史實이고 어느 것이 虛構인가.⁴⁾

주인공 윤지경과 최연화의 결연은, 歷史現實을 그리되 歷史 그 자체의 재 기록이 아니라 小說形式으로 形象化하기 위한 虛構의인 事件이다. 왜냐하면 지경과 결혼하는 연화는 물론이거니와 그녀의 父 최홍일도 역사에 없었던 인물인 것 같고, 윤현—윤지경—윤임으로 이어지는 남주인공의 家系도 역사상 각기 다른 시대에 살았던 實存人物의 이름만 借用했을 뿐 虛構이기 때문이다. 윤현, 윤지경, 윤임은 歷史上 實存人物임에는 틀림없으나 血緣關係가 없는 사람들이므로 단지 命名(appellation)을 위한 歷史的 人物의 借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윤현은 명종때의 인물인 尹鉉(1514~1578)이어도 좋고 선조때의 尹暉이어도 상관 없다. 윤지경은 1584년(선조 11)에서 1634년(인조 12)까지 살았던 尹知敬의 이름을 차용했고, 윤임은 1487(성종 18)에서 1545(인종 1)까지 살았던 사람으로서 仁宗의 外叔이며 乙巳土禍로 처형되었던 尹任의 이름을 빌어 왔음에 틀림없다. 역사상 인물인 尹知敬은 仁祖反正 때 入直中 反正軍에게 잡혀 참수될 뻔 했으나 인조의 만류로 살아났었는데, 이 사건을 작품에서는 지경의 아들 윤임의 일로 바꾸어 놓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잘 立證해 준다.

宗室 회안군의 추천에 의한 駙馬揀擇, 즉 朴嬪의 차녀 연성옹주와 지경의 強制婚姻 및 이에 대한 지경의 反抗도 허구일 수 밖에 없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경이란 인물은 실존했던 인물의 성명 차용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敬嬪林氏의 차녀는 연성옹주가 아니라 惠靜翁主로 남편이 光川尉 金仁慶이었기 때문이다. 종실 회안군의 실존인물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朴嬪은 뒤에서 다시 언급되겠지만 歷史上의 人物이며 종종도 실재 역사상의 中宗으로 어느 정도 실감될 수 있고 대변될 만한 歷史的 個人으로 그려져

4) 이러한 문제는 金起東 교수의 앞의 책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다시 다루는 이유는 歷史認識의 水準이나 態度 및 觀點을 파악하기 위한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며, 여기 부분에서 金起東 교수의 考證은 수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本考에서 참고한 歷史記錄物로서는 국역 《연려실기술 Ⅱ》(서울, 민족문화추진회刊, 1976)와 《王朝實錄》(중종편)임을 밝혀 두면서 개별적인 註는 달지 않는다.

5) 筆寫本《古典小說全集 6》(亞細亞文化社, 1980), p. 380. 앞으로의 작품인용은 모두 이 책에 의한 것이므로 그 面數만 기록한다.

있다.

다음으로 朴嬪의 黨人으로서 世子를 저주하고 윤지경을 탄핵하는 홍상과 그의 부친 홍명화, 그리고 복성군 장인이 있다. 홍상은 박빈의 장녀 영희옹주의 부마라 했으니 唐城尉 洪礪를 대신한 인물이고, 영희옹주는 惠順翁主를 대신한 命名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복성군은 역사상의 福城君이며 그의 장인의 실존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기묘사화에 대해서는 작품에서 지경이 박빈의 죄를 폭로하는 자리에서 서술되어 있는데, 박빈과 홍상이 남곤, 심정과 함께 끌려 나뭇잎에 <走肖爲王>이라 쓴 홍계를 꾸며 조광조 등 30여인을 포함하여 죽게 한 사건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런데 연려실기술에 의하면 己卯土禍(1519, 중종 14)는 勳舊派인 沈貞과 南袞이 洪景舟와 그의 딸 熙嬪洪氏를 시켜 대궐의 나뭇잎에 甘汁으로 <走肖爲王>이라는 글씨를 써 벌레가 갉아먹게 한 홍계를 꾸미는 한편, 敬嬪朴氏의 問安婢를 피어서 조광조가 임금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을 퍼뜨려 趙光祖 一派를 몰아낸 사건으로 되어 있다. 이로 볼 때 「尹知敬傳」의 작가는 기묘사화의 홍계를 洪景舟와 熙嬪洪氏가 아니라 洪礪와 敬嬪朴氏가 주축이 되어 꾸민 사건으로 판단하여 서술하고 있을 뿐, 주된 사건의 기록에서는 연려실기술의 기록과 별차이가 없이 歷史 그대로를 작품에 끌어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빈 박씨가 기묘사화 당시 沈貞·南袞 및 洪景舟 등의 훈구파와 손잡고 있었고, 中宗과 훈구세력의 연합에 있어서 희빈 홍씨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졌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歷史理解⁶⁾ 오류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灼鼠之變 및 假作人頭之變도 두 사건을 같은 해의 사건으로 기술해 놓기는 했지만, 표면에 드러난 歷史的 實在와 一致한다. 작서지변(1527, 중종 22)은 世子(仁宗)를 저주한 홍계로 東宮에 불태운 쥐와 다무조각으로 偶像 榜書를 만들어 걸어놓은 사건인데, 이로 인해 자신의 아들 福城君을 世子로 책봉할 야망을 가지고 있던 敬嬪朴氏가 범인으로 의심받아 복성군과 함께 귀양 갔다가 假作人頭之變 이후 1533년(중종 28)에 賜死되었 으며 이들과 연루된 洪礪 등이 죽고 박빈 소생의 두 옹주가 귀양갔다. 이러한 歷史的 事實은 작품에서의 서술과 完全 一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곤과 심정이, 중종이 죽은 후에 기묘사화의 홍계와 작서지변 당시 박빈과의 내통사실이 드러나 귀양갔다는 作品의 敘述은 역사와 완

6) 敬嬪朴氏와 熙嬪洪氏의 代置를 말함.

전 일치하지는 않는다. 南袞은 작서지변이 일어났던 1527년에 이미 病死했으며, 沈貞은 작서지변 이후 박빈과의 내통혐의로 賜死되기는 했으나 중종 死後가 아니라 中宗 生存時인 1531년(중종 26)에 죽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年代考證上的 誤謬는 있지만 事件의 歷史的 敘述은 史實과 一致하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인물 및 사건 외에도 趙光祖의 伸冤, 그리고 조광조를 구하려다가 파직되었던 鄭光弼, 李彥迪의 廟庭配享과 赦罪上疏 등이 있는데, 이들 인물의 生沒年代 考證은 정확하지 않으나 그러한 사실은 歷史事實과 一致한다.

이상의 검토에서 볼 때, 作家는 어떤 역사적 사건만을 입체적으로 그려서 小說化하지 않고, 歷史的 事實을 虛構와 結構시켜 小說로 形象化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歷史認識의 水準과 觀點

앞에서 〈歷史的 事實과 作品의 距離〉를 살펴보는 가운데, 本作品은 어느 정도의 虛構的 要素를 지녔는지, 그리고 작가는 歷史的 事實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小說化하였는지 하는 문제의 윤곽이 대체로 드러났다. 여기서는 이러한 앞장의 논의를 토대로 作家의 歷史認識의 水準과 觀點의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尹知敬傳」의 作家는 己卯士禍의 兇제를 熙嬪洪氏가 아니라 敬嬪朴氏의 所爲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작가가 이와 같이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경빈박씨가 가장 두터운 총애를 받던 후궁이며 黜舊 宰相 박원종의 딸로서 당시 훈구세력의 핵심적 원조자였다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또한 沈貞과 敬嬪朴氏와의 관계에 대한 작가의 歷史認識—작서지변 당시 심정이 경빈 박씨와 내통했다는 혐의로 賜死된 사실—은 沈貞·南袞이 주축이 되어 일으킨 己卯士禍의 兇제를 희빈 홍씨가 아니라 경빈 박씨와 관련지우게 한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던 것 같다. 말하자면 작서지변 때 심정과 경빈 박씨가 한패였으니 기묘사화에서도 이들은 한패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처럼 己卯士禍를 묘사하면서 희빈 홍씨나 훈구세력의 하나인 그녀의 父 洪景舟에 대한 인물설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作家는 기묘사화의 주축세력이 심정과 남곤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으나, 兇계를 실행한 그 세부적 관련인물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식을 갖지 못했던 것 같다. 또한 己卯士禍는

특정 集團의 權力強化에 상대적으로 수반되는 王權의 弱화로 결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빈 박씨에게 속아 넘어간 中宗의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했는데, 이러한 歷史解釋은 政治社會의 屬性에 대한 作家의 理解不足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灼鼠之變에 관해서도 당시 처결된 그대로 敬嬪朴氏一派의 所行이라고 하여 사건을 단순하게 처리해 버리고 말았다. 바꾸어 말하면, 作家는 灼鼠之變의 眞犯에 대하여 당시의 분분한 여론⁷⁾이 있었고, 그 뒤에 假作人頭之變이란 또 다른 東宮詛呪事件이 일어나 작서지변과의 同一犯與否에 대한 朝廷의 論難이 분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작품에서 전혀 다루어 놓지 않았다. 이는 당시 政治現實을 力動的 歷史의 一部로 파악하여 사실적으로 묘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敬嬪朴氏一派를 무조건 不徳한 小人集團으로 규정하고자 했기 때문에 결과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미 언급한 바처럼 작서지변 때 경빈과의 내통자를 심정뿐 아니라 남곤까지 포함시켜 놓았던 것은 작가의 歷史知識의 不足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작서지변 당시 심정이 박빈과 서로 내통했던 인물이라는 作家의 막연한 歷史知識은 기묘사화와 박빈을 관련시킨 결과를 가져왔고, 유추에 의한 이러한 착각은 그 역작용으로 작서지변 때 박빈과의 내통자를 심정뿐 아니라 남곤까지 끌어들이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⁸⁾

결국, 의도적 배려가 아니라면 尹知敬傳의 作家는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정확한 지식은 지니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작가의 이러한 歷史的 知識의 不足이 歷史意識의 不足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를 제재로 한 소설도 소설인 이상 작가의 상상력에 의한 작품세계의 창조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그것이 얼마나 정확히 고증된 역사인가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⁹⁾ 즉 어떤 소설작품이 역사적 사실이나 상황을 문제삼는다고 해서 그대로의 史實이나 인물을 정확하게 옮겨놓을 필요는 없으며 어느 정도의 史實에서 벗어나는 것은 創作行爲의

7) 灼鼠之變은 敬嬪朴氏의 所行이 아니라, 金安老와 尹任 등 世子派가 자신들의 세력을 다지는 데 있어서 위협적 요인이 되는, 福城君을 옹호하는 黜舊功臣들을 몰아내려는 逆機能的 東宮詛呪事件이라는 소문이 분분했다고 한다.

8) 심정·남곤이 기묘사화의 중추인물이었으므로 기묘사화에서 박빈이 이들과 함께 했으니 작서지변때도 이 두 사람과 박빈이 결탁했을 것이라는 부정확한 역사지식을 가졌음에 틀림없다.

9) 白樂晴, 歷史小說과 歷史意識, 創作과 批評 제 2권 1호(창작과 비평사, 1967 봄) p.6 참조.

당연한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¹⁰⁾ 문제는 작가 나름대로 얼마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어떠한 태도로 역사를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尹知敬傳」의 作家는 작품에서 세자를 몰아내고 福城君을 새로운 世子로 책립하려는 敬嬪朴氏一派와 沈貞·南恂을 惡人으로, 이들을 비판하면서 이들의 비리를 폭로하려는 知敬¹¹⁾을 善人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章敬王后 尹妣가 元子(仁宗)를 낳은 후 죽자, 中宗의 총애를 받고 있는 자신이 증전으로 책봉되고 원자보다 한 살 위인 자신의 아들 福城君을 새로운 世子로 冊立하려 했던 朴嬪一派와 勳舊宰相들을 否定的으로 評價하고, 元子를 세자의 자리에서 고수하려 했던 尹任一派를 肯定的으로 評價하려는 歷史理解態度로 귀결된다. 박빈일파의 적대인물로서 하필이면 尹氏를 허구적 인물로 설정해 놓았는가 하는 의문도 여기서 해결된다.¹²⁾

작가가 尹任一派를 肯定的으로 認識, 評價하고 있다는 證據는 또 다른 것에서도 드러난다. 즉 윤임에 의해 등용되었다가 윤임의 처벌에 미온적이었다고 해서 처형되었던 李彥迪을 肯定의 人物로 그려, 그의 赦勉을 문제삼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灼鼠之變 및 假作人頭之變의 眞犯이, 金安老의 아들이며 孝惠翁主의 남편인 金禧라는 사실이 종종 27년에 밝혀졌음¹³⁾에도 불구하고 敬嬪朴氏一派를 그 眞犯으로 단정해 버린 이유도 이해된다.

이와같은 歷史認識의 태도나 관점으로 볼 때, 作家는 尹任이나 金安老를 옹호하고 감싸야 할 입장에 있었던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작가는 자신의 社會的, 歷史的 位置에서 오는 제한된 視野를 넘어서지 못했으며 그로 인하여 己卯土禍나 灼鼠之變 같은 歷史的 事件을 敬嬪朴氏一派의 個人的 不德이나 私慾에 의해 야기된 것처럼 처리해 버림으로써 歷史敘述의 客

10) 위의 책 같은 곳 참조.

11) 다소 위협스런 판단이긴 하지만 작품의 윤지경은 역사상의 尹任을 대신한 인물인 것 같다. 이러한 代置는 작품의 마지막에서 「윤공의 소절이 간간 귀이훈 일이 무슈하되 지친의 초청의 거러져 그 드리는 일만 기록호노라」라는 말로 보아 작자 자신의 은혜를 위한 의도적인 배려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작서지번의 흥계를 金安老나 尹任일파의 소행이라 하지 않고, 敬嬪朴氏일파의 소행이라 이해하고 규정할 것도 의도적인 배려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12) 따라서, 주인공 尹知敬은 단순히 허구를 위한 허구적 인물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중종대의 정치적 현실을 묘사하기 위한 歷史的 個人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13) 金禧가 眞犯이라는 李宗輿의 上疏가 있는 후 福城君과 敬嬪朴氏一派는 伸冤되 있음.

觀性을 결여하고 있다. 물론 歷史事實은 완전히 客觀的일 수는 없지만,¹⁴⁾ 지나치게 작가 개인 위주로 歷史事實을 결론짓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위주의 歷史理解와 解釋은 부적당하다든가 일방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虛構 내지는 虛偽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¹⁵⁾

어쨌든 「尹知敬傳」의 作家는 자신의 社會的, 歷史的 位置에서 오는 제약 때문에 歷史現實을 客觀的으로 그려내지 못했으며, 도덕적 교훈이라는 善惡觀念을 기준으로 歷史를 理解함으로써¹⁶⁾ 근대적 歷史認識의 水準에까지는 미치지 못했음에 틀림없다. 즉 歷史現實은 역사적 움직임의 일부로서 파악되어야 하며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 자신의 사회적, 역사적 위치에서 오는 제한된 시야를 넘어서야 客觀的일 수 있다는 近代的 歷史觀에서 볼 때, 善惡觀念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역사현실을 평가하고 판단하려 한 本作家의 기준은 歷史認識水準이나 方法의 限界로 지적되어야 함을 피할 수 없다.¹⁷⁾

Ⅲ. 作品의 樣相과 歷史現實

駙馬揀擇이라는 婚事障礙와 그 克服過程은 本作品의 基本骨格을 이루고 있다. 본작품이 愛情小說의 하나로 다루어져 온 것은 이를 근거로 한 것이며, 이른바 愛情과 王權의 葛藤이 작가가 의도하고 있는 問題意識으로 간주되어 온 것¹⁸⁾도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애정과 왕권갈등이 작가가 의도하고 있는 問題意識¹⁹⁾의 진정한 實際는 아님을 말해 주는 면이 있어 좀더 치

14) E. H. CARR, 吉玄譯, 《歷史란 무엇인가》(서울, 探求堂, 1976), p. 157.

15) 위의 책 p. 158 참조.

16) 역사를 객관적으로 그려내지 못하고 권선징악적 선악관념으로 파악하며 동적인 역사가 아니라 도덕적 교훈의 원천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진보되지 못한 동양 전통적 역사관의 일면이라 할 수 있다.

17) 本作品中에서 지적될 수 있는 歷史考證의 정확성이나 客觀性의 결여 및 善惡觀念에 의한 역사 이해가 歷史意識의 不足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소설창작의 자료(역사기술물)를 심사리 구해 볼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나마 당시의 역사를 그려려 했던 작가의 역사의식은 오히려 투철했다고 할 수 있다.

18) 金起東교수는 “不仁한 임금에 대항하는 남성의 사랑을 표현해 놓은 문제작”(金起東, 韓國古典小說研究, 서울 教學社, 1981, p. 158)이라 했고 安榮美도 전적으로 이에 의거하여 작품을 해석하고 있다.

19) 소설을 <문제와 해결의 언어>라 한다면, 問題意識이란 작품에서 문제삼고 있는 작가의 계산적이고 의식적 사고의 범주를 의미한다.

밀한 검토가 요청된다.

1. 愛情葛藤과 作品의 樣相

작품 줄거리의 명료화를 위해, 人物의 對立 및 對決關係에 따라 줄거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 윤지경은 최연화와 어렵게 사랑을 이루고 정혼했다.
 ㉡ 회안군이 지경에게 구혼했다가 거절당하자 지경을 연성옹주의 부마로 삼을 것을 즉시 왕에게 주달했다.
- (나) ㉢ 혼례 중 勳婚令이 내려졌으나 이미 결혼했으므로 거절했다.
 ㉣ 왕은 회안군의 주장에 따라 옹주와 강제 혼인 시켰다.
- (다) ㉤ 지경이 옹주를 돌아보지 않고 연화와의 애정관계를 공고히 했다.
 ㉥ 朴嬪黨與들이 지경의 옹주 박대죄를 탄핵했으나 왕은 격이 드러나면 다스리겠다고 했다.
- (라) ㉦ 옹주가 연화와 지경의 관계를 부당하다고 하니 지경은 옹주의 不德함을 꾸짖고 박빈과 왕의 어리석음을 비웃었다.
 ㉧ 박빈이 지경의 죄를 다스릴 것을 다시 간청하니 왕이 지경과 연화가 만나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였으므로 崔府에서는 연화의 거짓장래를 치루었다.
- (마) ㉨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연화를 3년만에 만난 지경은 朝會에도 참여하지 않고 연화와 은밀히 숨어 지냈다.
 ㉩ 박빈은 왕을 부추겨 연화와 지경을 각각 귀양보냈다.
- (바) ㉪ 박빈일파의 정치적 음모가 드러나고 말았다.
 ㉫ 부마위가 거두어지자 연화와 옹주를 맞아들여 화목하게 살았다.

겉으로 드러난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해 본 위의 줄거리를 통해 볼 때, 「尹知敬傳」의 사건은 어렵게 성취된 愛情關係를 지속적으로 維持하려는 主人公의 意志와 이러한 애정관계의 단절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愛情關係를 强要하는 敵對勢力의 意志가 팽팽한 對立과 對決을 이루면서 반복적으로 교체되다가 적대세력의 자기파멸에 의하여 종결된다. (가)~(배)까지의 ㉠단락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성취된 애정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애정의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知敬의 行爲이고, ㉡단락은 새로운 애정관계로 지경을 결속시키려는 朴嬪一派와 회안군의 행위이다. (배)는 反轉에 의한 갈등의 결말부분이므로 단락 앞뒤의 질서가 뒤바뀐 상태다. 줄거리를 통해 드러나는 이러한 愛情葛藤은 전적으로 愛情과 王權의 葛藤으로 볼 수는 없는데, 여기서 王權의 行使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일 뿐이며 王을 움직이고 있는 진정한 힘

이나 동기는 불합리한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희안군과 박빈일파에게 있기 때문이다. 물론 王權과의 對決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을 이루는 대부분의 葛藤은 王과 主人公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王權을 이용한 朴嬪一派와 主人公 知敬 사이의 對立·對決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애정갈등은 宗室 희안군이 이미 최연화와 약혼한 지경에게 求婚했다가 거절당하자, 지경을 연성옹주의 駙馬로 삼을 것을 즉시 왕에게 주달함으로써 발단된다. 결국 지경에게는 연화와의 婚禮 도중에 勸婚승이 내려졌고, 지경은 이미 婚姻했음을 이유로 완강히 거절했다.²⁰⁾ 즉, 희안군의 부마추천 행위는 奸邪不計한 小人의 行爲이며, 이를 깨닫지 못하고 희안군의 말만 듣고는 개인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최훈명을 관철시키려는 王은 昏君이다 하면서 항거했다. 그러나 죽어도 항복하지 않겠다는 지경에게 王은 “너 윤지경을 못 재어 올리오”(p. 299)라고 하며 知敬 父子를 獄에 가두면서까지 강제로 혼인을 시키고 만다. 翁主와의 幸福한 結合에 대한 갈망이라기 보다는 王命을 관철시키려는 絕對的 王權의 誇示²¹⁾처럼 보이는 王의 이러한 처사는 결과적으로 연화와 지경 사이에 愛情의 危機를 가져오게 된다. 부마로 간택되면 翁主 이외의 또다른 부인은 둘 수 없다는 당시 王室의 婚姻制度는 연화와 지경 사이의 愛情關係의 斷絶을 前提條件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경은 부마로 간택된 뒤에도 翁주를 돌아보지 않고 연화와의 애정관계를 지속시키면서 왕명에 승복하지 않았다. 翁주가 연화와의 은밀한 애정관계를 알고 자신의 친대반음을 서려워하며 지경을 만류했지만, 지경은 오히려 翁주의 不德을 꾸짖는 한편 翁주와의 화합을 강요하는 박빈과 왕을 욕하고 비웃으며 연화와의 애정관계를 더욱 두터이 한다. 이 때문에 왕권을 이용한 희안군과 지경의 對立은 朴嬪과 知敬의 葛藤으로 轉移되는데, 박빈은 왕을 충동질하여 지경의 죄를 다스리라고 했고 王은 지경을 불러 꾸짖고 尹府와 崔府에 王命을 내려 연화와 지경의 관계를 단절시키도록 했다. 王權을 업고 있는 朴嬪의 權勢를 두려워한 나머지 尹公과 崔公은 연화의 거짓장래를 치위하면서까지 그들의 만담을 방해했다. 그러나 지경은 마침내 그 真相을 알고는 도리어 연화와 은밀히 숨어 지내면서 朝會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20) 부마 간택에 대한 완강한 거절과 이로 인한 수난의 이야기는 귀족적 영웅소설에서 대장편 가문소설까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바다. 趙東一, 한국문학통사 3, (서울, 지식산업사, 1984), p. 506 참조.

21) 安榮美, 앞의 논문 p. 9.

그 결과 연화와 지경이, 박빈의 탄핵으로 각각 귀양가게 됨으로써, 두 사람의 愛情危機는 극한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러던 중, 朴嬪一派의 政治的 陰謀가 저절로 드러나게 되었다. 옹주까지 유배되어 駙馬尉는 거두어졌으며, 연화와 지경은 解配되었다. 그러자 지경은 최연화를 맞이한 후 다시 옹주를 맞이하여 두 부인을 저느리고 화복하게 살게 됨으로써 당시 왕실의 혼인제도를 다시 한번 거역했다.²²⁾

이처럼, 知敬은 獄에 간혀 가면서까지 強制婚姻을 당해야 했고, 朴嬪黨與의 탄핵과 연화의 거짓장계에 의한 애정의 방해 및 왕의 질책, 그리고 귀양을 가는 등의 거듭되는 婚事障礙를 克服하고 마침내 연화와와의 애정을 성취했다. 이러한 作品展開를 통해 駙馬揀擇制度의 不合理性이나,²³⁾ 이미 定婚했다는 남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간악한 무리의 말에만 의존하여 무조건 王命을 관철시키려는 絶對的 王權에 대한 批判이 作品의 意味로 드러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는 이미 다른 소설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일반화된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意味는 作家가 이미 一般化된 愛情小說의 樣式을 借用하면서, 作家의 意圖와는 관계없이 나타난 無意識의인 意味일 가능성이 많다.²⁴⁾

지금까지 살펴본, 駙馬揀擇에 따른 愛情의 危機와 그 克服을 통한 完全한 愛情의 成就를 다룬 基本的 展開는 「尹知敬傳」의 作品樣相을 結晶지워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作品樣相은 이미 잘 알려진 一般化된 形式으로 「金振王傳」, 「權龍仙傳」, 「蘇氏傳」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本作品이 愛情小說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줄거리의 外樣과 근거한다.

2. 作家의 問題意識과 歷史現實

小說研究에 있어서 작품의 줄거리를 몇개의 단락으로 나누고 그 段落의 體系的 關係分析을 통하여 작품을 이해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가능한 방법 중에서 最善의 方法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작품해석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방법일 수는 없다. 특히 「尹知敬傳」의 경우, 단락의

22) 조동일, 앞의 책 p. 506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다.

23) 安榮美는 筆者의 생각과는 달리 葛藤의 震源이 된 制度 그 자체가 지닌 問題點에 대해서는 作品이 아무런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앞의 논문 p. 37)고 했는데, 지나친 논리적 비약때문에 이러한 論旨는 선뜻 공감이 가지 않는다.

24) 無意識의 意味가 경우에 따라서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도 많다.

체계적 관계분석만으로는 作品의 實相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事件段落의 關係分析을 통해서 이해되어질 수 있었던 혼사장애와 그 극복과정이라는 작품의 기본적 전개 속에는 전혀 다른 面貌를 보여 주고 있는 측면이 숨겨져 있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본 작품을 읽으면서 구체적 사건전개뿐 아니라 文面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의 細細한 對話內容까지 관심을 둔다면, 왕을 매개로 한 박빈일파와 지경의 갈등은 否定的 政治集團에의 隸屬과 그 예속으로부터 脫皮하여 삶을 유지하려는 신진 사대부의 生存意志 사이의 葛藤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²⁵⁾

本作品中 問題의 發端은 종실 회안군이 지경을 박빈의 차녀인 연성옹주의 부마로 천거한 데 있다고 했다. 그런데 부마 천거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회안군이 구혼하여 허치 아니함을 노하여 즉시 상귀”(p.295) 주청했다고 하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 서술은 없다. 따라서 회안군이 지경에게 처음求婚할 때도 누구를 지경의 배필로 삼으려고 청혼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처음부터 연성옹주를 위하여 지경에게 구혼했다가 거절당하자 즉시 왕에게 주달하여 왕권을 빌어 자신의 뜻을 성취하려고 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연성옹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들때면 자신의 딸)을 위하여 지경에게 청혼했다면 연성옹주의 배필로 지경을 천거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회안군이 지경을 부마로 천거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회안군은 왕권을 빌어 지경을 연성옹주의 배필로 삼겠다는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고 지경은 이에 항거했다. 이로 인하여 회안군이 박빈일파라는 서술은 없지만, 결국 회안군과 지경의 대결은 박빈일파와 지경의 대결로 전환, 확대된다. 즉 지경이 첫날밤부터 翁主를 薄待함으로써 박빈일파와 지경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이다.

이들의 팽팽한 대결과정에서, 中宗代 不合理한 政治勢力인 朴嬪一派에 대한 주인공 知敬의 批判을 통하여 당시 政治社會의 모순되고 불합리한 상황이 폭로된다.

홍상은 옹주와 극히 진통하고 상이 주실슈목 무훈 더 엇고져 하고 귀인 존경하기를 지극히 하여 부모갓치 하니 박씨 극이하고 홍상의 아비 명히 디스현으로서 복

25) 「尹知敬傳」의 作家가 의도하고자 한 문제의 쫓점은 君臣間의 葛藤에 있고, 君臣間의 葛藤은 유교적 고정관념의 지배를 받아 은폐되어 있으며 朴嬪一派와 知敬의 對決은 君臣葛藤의 은폐를 위한 과정(안영미의 앞의 논문 pp.36~37 참조)이라고 처리해 버린다면, 이는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며 中宗代의 政治現實을 문제삼고자 한 본작품의 새로운 의미는 死藏되어 버리고 만다.

성군하고 부설하여 어전의서 북성군의 문지와 지혜 세조의 나흔 줄노 길이고 쓰
경조윤박인은 북성군의 당인이라 상고 흥상의 지덕과 북성군의 문지를 기리고……
(p. 312)

작품의 이러한 서술은 世子(仁宗)를 저주하고 福城君을 새로운 세자로 책
립하려 했던 敬嬪朴氏一派的 술책을 표현해 놓은 것으로서, 中宗代 政治狀
況의 一面이 잘 드러나 있다. 敬嬪朴氏는, “경궁이 두려하는 권을 가져시
니”(p. 306)라고 한 것처럼, 실제 역사상에 있어서도 中宗의 총애를 받아 상
당한 실권을 지녔고 勳舊功臣들과 연합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막
강한 權勢集團에 완강히 대항함에 따라 知敬은 翁主薄行罪란 名目으로 탄핵
을 받게 된다. 知敬의 抗拒는, 王室과의 인척관계를 맺음으로써 막강한 權
力을 行使할 수는 階層으로 부상하려는 관료들의 通念的 屬性에 대한 거부
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朴嬪一派的 탄핵은, 새로이 充員된 뛰어난 관료와
의 結束을 위한 시도가 실패함으로써 오히려 견제세력으로 성장될 수 있는
근원세력을 陶汰시키려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처럼 朴嬪一派的 탄핵에도 불구하고 知敬은 최연화와의 애정관계를 지
속했으며, 박빈의 권세를 두려워한 崔公의 간곡한 만류²⁶⁾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옹주와는 화합하지 않았다. 知敬이 王權을 앞세운 朴嬪一派的 강압에
그토록 힘겨운 對抗을 하는 것은 연화와의 愛情成就보다 좀더 궁극적이고
결실한 이유가 있다.

옹주는 천하괴물 박식이요 귀인은 간악이 무비하고 북성군은 남활하기 심홀더
흥명과 흥상이 박빈을 처결하여 필연 그옥홀 흥계를 저울지라 옹주를 후덕하고 그
당의 드렀다가 멸문지환을 면치 못하리니 안히울 이풍하고 옹주를 박되하면 불과
빙부와 부친이 큰죽 정빅요 적은죽 삭직이요 쇼서는 귀향할 더 흐리잇가(pp. 316~
317)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翁主와의 和合은 朴嬪一派的과의 結束을 결과하
므로 그들 집단이 꾀하는 흥계가 결국 드러나게 되면 滅門之患을 면치 못한
다는 심각한 삶의 문제와 危機意識이 옹주 박대의 근본적인 이유로 대두되
어 있는 것이다. 지경은 歷史的 現實을 명확히 파악하여 닥쳐올 患難을 豫
見했고 그래서 危機意識을 느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식은 敗北
主義로 전락하지 않고 이에 맞서려는 意志로 表明되고 있다. 따라서 王命을

26) 筆寫本 古典小說全集 6권, p. 316.

거부하고 최연화와 애정행위를 계속하는 知敬의 行爲는 단순히 애정의 성취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家門과 自身의 生存을 위한 手段이며 닥쳐올 危機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대세력에 맞서려는 意志의 표현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翁主는 사실 연화와 지경의 愛情關係에 있어서 障礙物은 될 수 있지만 敵對勢力으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다. 翁주는 박민일파와의 동조자도 아니다. 翁주는 오직 왕의 명령을 따르고 知敬의 薄待함을 참지 못할 뿐이다. 翁주는 최연화와 지경의 자세한 관계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그들의 관계를 알았을 때도 연화를 再娶라고만 생각하고 반발했던 것이다.

네 비록 용열하나 님군의 쓸이오 빙애로 부마의 안락되거늘 업슈이 녀어 천디항기 심하다가 최씨를 어더 고희항역시되……(中略)……최홍일은 엇더한 사람이완디 부마의게 지휘를 주어 주상과 첩을 업슈이 녀어미 심호노. (p. 318)

당초의 조강지처 업는지 엇던지 니 심궁 처너로 엇지 알니오. 상명으로 부마의 안락되여 누은지 거년이나 천디가 틱심항여 힘노보듯하니 엇지 통홀지 아니리오. (p. 319)

翁주가 이처럼 翁을분을 토로하자, 지경은 박민을 간악하다고 하면서 후궁을 지극히 총애하는 왕의 행위까지 비꼬아 비판한다.²⁷⁾ 이러한 일이 곧 박민에게 알려졌고 박민은 왕에게 주청하여 또 한번 지경을 탄핵한다. 왕에게 불려간 지경이 홍문관 등 朴嬪一派가 福城君을 옹호하고 世子를 저주하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북성군의 행동을 비난하자 지경과 박민의 갈등은 더욱 심각한 상태로 치닫는다.

그들의 非理가 폭로되어 위협을 받게 되자, 박민은 自己集團의 유지를 위한 自求策으로서 翁主薄待行爲를 내세워 지경의 죄를 다스리라고 끈질기게 주청했다.

네 엇지 너꼴을 박디하고 니 허물을 지어니고 북성군은 궁홍홀 디 모르너허 우리 모즈를 전제항여 최너로 득락홀 계교를 한노노. (pp. 327~328)

박민은 自己防禦를 위한 궁여지책으로, 지경의 비난은 자기 母子를 견제하여 최소저와 同樂하기 위한 모함이라고 몰아 세웠다. 이러한 날카로운 대결은 翁주박대와 최소저와의 만남이 없도록 하겠다는 王의 중재로 일단 完화되었으나 내면적 갈등은 한층 가중되었다.

27) 全集 6권 p. 320.

尹公과 崔公은 王命에 따라 최소저의 거짓장례를 치루었고, 이 때문에 죽은 것으로 알았던 최소저를 3년만에 다시 만나게 되자 누적되었던 지경의 감정이 폭발되면서 갈등은 절정에 이른다. 지경은 최소저와 은밀히 숨어 지내면서 몇개월 동안이나 나타나지 않았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종종은 지경을 잡아오게 했고, 여기에 이르러 中宗도 신랄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

혼군이요 첩의게 혹하여 소인과 함께하여 흥계를 깊히하는 거살 세대지 못하여 현신 충량을 살피하고 권하박식 괴물의 첩꼴을 위하여 날을 괴로이 보치느냐.

(p. 339)

데리러 온 宦官에게 말한 이 인용문은 敬嬪朴氏를 총애한 나머지 己卯士禍와 같은 그들의 흥계도 깨닫지 못한 王의 우둔함을 비판한 것이며, 王의 絶對權 行使가 특정한 權力集團化로 무력해져 있는 사정을 말해 준다. 이처럼 지경은 中宗을 昏君이라 비난하면서 己卯士禍²⁸⁾의 흥계를 폭로한다. 王 앞에 끌려가서도 사회에 죽은 趙光祖 등 30여인은 忠臣이고 조광조의 재주를 꺼리고 권력을 잡기 위하여 그들을 죽인 南恣과 沈貞은 奸臣이며, 朴嬪은 조광조를 죽이기 위해 흥계를 꾸민 장본인이라고 執權勢力의 非理를 고발했다. 그리고 현명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모함을 받아 죽어간 것은 中宗의 不明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또한, “박귀인이 던하계 후궁덜의서 경총흥을 밋어 동녘을 투기하여 잡고 등견이 지존하시거늘 항형하며 촉범하여 교만이 아들을 마르쳐 의조더신을 쳐결하여 장금누통하고 도정등스를 간예” (p. 346) 한다고 하여 박빈을 집중적으로 비난했다.

다음해진 박빈은 왕을 충동질하여 마침내 지경을 유배 보내도록 했다. 지경이 귀양갈 때 尹公이 질책하니, 자신의 행동은 保身之計라고 일러 준다.

부친이 엇지 쇼즈의 쓰줄 모르시느니잇고, 불과 수년이 못하여 더환이 늘거시니 쇼지 상히 박셔를 노홉게 하여 정비를 지원하여 부지 경종코져 함미로소이다.

(p. 351)

여기에서 박빈과 지경의 대결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된다. 언젠가는 파멸할 집단에 영입되지 않음으로써 가문과 자신의 생존을 지키려는 뜻깊은 패배가 그것이다.

28) 己卯士禍는 작품전개에 있어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사건이 아니고, 주인공의 대화 속에서 요약적으로 서술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金東烈은 기묘사화에 대한 서술내용만으로 本作品의 歷史意識을 云謂하고 있다. 金東烈, 앞의 논문 참조.

知敬의 流配로 대결의 승패는 굳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귀양지에서도 지경은 王이 보낸 使者에게 타락한 조정을 비난하며 항거하고자 했다.

제학이란 거산 글하듯 하는 제인인디 녹월의 기가죽 쓰미고 히독침츠하는 제학이 어디 잇스리…中略…에서 듯츠하니 니조판서는 만석군이 되었다 하더라……中略…… 영의정 명광필과 우의정 노모난 무슨 께로 언언정을 못보고 죽으니 엇지 춤혹지 아니리오……中略……니조판서는 박빈의 아이니 쌀밭고 벼살하인단 말이 남츠하교 흥문제학은 남곤의 아이니 입질노 병이 잇서 글을 번번이 못하교 니조좌랑은 박씨의 오라비 아들이오 금금스인은 명문해니 심정승의 소희로 이 두 사람이 청수 환질너라. (pp. 359~360)

이처럼 특정된 核心集團에 의한 權力의 獨占化 내지 私有化 현상에 의한 非理와 타락해 버린 朝廷을 비난하면서 朴嬪一派와 대결하지만 승패의 전환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듬해 朴嬪一派의 野望이 노골화되면서 東宮(仁宗)을 詛呪하는 灼鼠之變과 假作人頭之變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이 박빈일파의 소행임이 밝혀져 박빈일파와 지경의 대결에는 극적인 反轉을 가져온다.

박빈, 복성군, 홍상 등이 죽음을 당했고, 두 옹주는 귀양갔으며, 심정과 남곤도 추출당했다. 반면에 지경과 최소저는 解配되고 駙馬尉도 거두어졌으며, 왕은 지경의 保身之計를 칭찬하고 승지를 제수한다. 그리고 최소저와의 결혼을 허락받은 후, 지경은 옹주의 무죄를 주청하여 용서받고 和合하게 된다.

王權을 利用하여 지경을 유배 보냄으로써 확고한 정치적 기반을 다졌던 박빈일파는 東宮詛呪事件의 露出로 패배하게 되고 지경에게는 승리가 주어졌다. 지경의 신랄한 공격에도 좀처럼 패배하지 않던 박빈일파를 저절로 좌절토록 한 이러한 反轉은 作家의 意圖的 配慮로 이해되어야 한다. 作家의 이러한 事件處理方式은 신악관념에 바탕한 作家의 觀念的 倫理意識에 근거한다. 착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倫理的 當爲가 개입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작가는 지경과 박빈일파의 대결을 통해 中宗代 歷史現實의 一面을 대담하고도 예리하게 파헤치고 있다. 朴嬪一派는 곧 政治的 權力을 장악하기 위하여 음모와 흥계를 자행하는 中宗代 權勢集團의 代表物로 그려져 있고, 知敬은 그러한 권세집단과의 결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장차 家門과 自身の 生存을 維持하는 길임을 豫見하는 신진 사대부의 모습으로

그러져 있다.

尹知敬은 暴力과 끊임없는 惡의 支配에 抗拒하기 위하여 集團의 努力을 하도록 그려지지는 않음으로써 작가의 역사적 안목이 아직 수준미달이라 하겠지만, 權勢集團의 腐敗는 派閥의 확장으로 朝廷의 腐敗를 結果하고 왕의 어리석음으로 확대되어 있다고 하는 데서, 당대의 政治的 歷史現實은 예리하게 폭로되어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의 폭로는 작가의 현실비판의식의 발현이다. 말하자면, 주인공 지경에 의해 代辯되고 있는 이러한 歷史現實은 作家의 自覺的 現實認識의 表明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中宗代는 支配階層의 분열과 대립으로 알력이 심하였고, 中宗은 파벌의 지나친 세력확대로 자신의 소신대로 국사를 처결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王의 우유부단이 정치질서의 혼란을 가중시킨 時代라 말할 수 있으므로 歷史現實을 認識하는 作家의 眼目은 매우 날카롭다고 하겠다.

소설에 있어서 주인공은 작가의 자기변호를 위한 수단이며, 작가가 作品에서 意圖하고 있는 問題意識은 주인공을 통해서 代辯되기 마련이다.²⁹⁾ 그렇다면, 「尹知敬傳」의 진정한 問題意識은 權勢를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 흥계를 자행하는 政治集團의 腐敗相과, 언젠가는 패망하고 말 권세집단의 결속에서 벗어남으로써 家門과 自身의 生存을 維持하려는 신진사대부의 삶의 지혜를 제시하자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IV. 小說史的 價値

婚事障礙와 그 克服過程을 다루고 있는 「尹知敬傳」의 基本的 展開은 이미 널리 알려진 소설양식을 되풀이했다고 하겠지만, 主人公을 통하여 代辯되고 있는 中宗代의 歷史現實은 전혀 다른 측면에서 보여 주는 새로운 面貌라 할 수 있다. 즉 이 작품은 駢體揀擇에 의한 愛情의 危機와 그 克服過程을 작품 전편의 사건으로 확대하여 활용함으로써 형태적으로 보아 愛情小說의 樣相을 지니면서, 史實을 제재로 하여 歷史現實을 문제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내용상 歷史小說로서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尹知敬傳」은 애정소설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한편으로는 讀者의 慣習화된

29) 作中主人公, 특히 프로타고니스트(Protagonist)는 작가의 意識을 形象化시키는 작가의 分身이기 때문이다. 曹南鉉, 《小說原論》(고려원, 1982), pp. 129~132 참조; 李鉉國, 「九雲夢」과 「淑香傳」의 比較考察, 《文學과 言語》第5輯(대구, 문학과 언어연구회, 1984) pp. 63~64 再引用.

期待水準에 부응하면서,³⁰⁾ 다른 한편으로는 증중대 역사현실을 새로운 문제로 제시함으로써 讀者들의 새로운 것에 대한 期待欲求를 충족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애정소설이라는 고답적인 표현을 빌어 中宗代의 不合理한 政治現實을 주된 관심사로 다루었다. 작가는 그러한 社會現實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兩班 知識人의 감추어져 있는 苦悶의 表明이 본작품의 구조를 마련했을 것이다. 이처럼 사대부 상호간의 갈등과 분열이 심하던 때에 야기될 수 있는 사대부의 깊은 고민이 이 소설을 만들었을 것이나, 역사적 사건만으로 소설을 형상화하지 않고 허구적 사건까지 끌어들여 소설을 만들었다 하겠다.

역사적 사실을 제재로 하여 그 당시의 역사현실을 문제삼은 소설이 허구적 사건을 끌어들여 작품의 기본골격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설의 약점이나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尹知敬傳」에서 지경과 최소저와의 결연, 그리고 부마간택이 역사적 사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허구적 요소라고 해서 작가가 의도하고자 한 당대 歷史現實의 提示에 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역사적 현실의 小說的 形象化라는 면에서 하나의 方法論的 問題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歷史的 事實 그것만으로 小說을 쓴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옮겨쓴다면 그것은 소설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歷史를 소설처럼 꾸미기 위해서는 소설형식으로 形象化해야 한다. 歷史的 사건만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할 수 없었던 「尹知敬傳」의 作家는 歷史를 쓰자는 것이 아니고 소설을 쓰고자 했으므로 허구적 사건의 도입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증중대의 歷史的 사건만으로는 소설로 형상화할 수 있는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허구적 요소를 끌어들여 애정소설의 형태를 취했으리라 생각된다. 어쨌든, 지경과 최연화와의 결연, 그리고 부마간택에 의한 애정위기와 그 극복과정은 「尹知敬傳」을 소설로 만들기 위한 허구적 요소이며 작가가 발견한 小說的 形象化의 한 方便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尹知敬傳」의 作家는 남주인공의 命名을 역사적 인물에서 가져옴으로써 허구라는 느낌을 최소한 줄이려고 노력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30) 작가는 작품을 쓰기 전에 독자의 입장에서 독자의 기대지평을 작품에 반영한다.

Hans Robert Jauss, *Literary History as a Challenge to Literary Theory*, New Direction in Literary Histor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4, pp.

11~41 참조.

史的인 人物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은 물론, 史的인 事件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인물은 허구인 소설까지 歷史小說이라고 하는 규정³¹⁾을 받아들인다면, 「尹知敬傳」은 역사소설의 관점에서 논의되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

「尹知敬傳」은 中宗代를 단순한 배경만으로 설정하지는 않았다. 작중인물이 과거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을 뿐, 그의 성격이나 행동은 그 무대의 역사적 특징과 아무런 필연적 연관성이 없다면 그 역사적 무대는 단순한 무대장치에 지나지 않지만³²⁾ 「尹知敬傳」은 그렇지 않다. 作家는 인물들을 중종대라는 구체적인 시대에 귀속시키고자 노력했고, 중종대의 歷史的 特性으로부터 人物의 個性을 이끌어내고 있다. 王은 실재 歷史上的 中宗을 대변해 주는 인물일 수 있고, 박빈은 훈구파의 내조자가 되었던 敬嬪朴氏의 재현이라 할 수 있다. 지경 또한, 허구적 인물로 그가 벌이는 행위는 허구적 사건이기는 하지만, 당시 歷史的 狀況 속에 살아 있었을 법한 인물로 실감될 수 있다. 몰아낸 세력이 도리어 물리게 되고, 물렸던 세력이 몰아냈던 세력을 다시 몰아내는, 음모와 흥제가 난무한 시대적 와중 속에서 自己生存의 問題에 눈 뜬 사대부의 한 사람이 尹知敬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본작품의 인물들은 中宗代 歷史現實의 特性 속에서 이끌어낸 歷史的 個人들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尹知敬傳」은 中宗朝라는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政治的 社會現實을 그 시대의 독특하고 구체적인 분위기 그대로 나타내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셈이다. 중종대의 정치상황의 모습과 삶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피부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尹知敬傳」에서 보여지는 歷史的 事實의 錯誤나 부정확한 歷史考證도 이 소설의 커다란 단점일 수는 없다. 희빈 홍씨를 경빈 박씨로 착오하는 등의 실수는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소설은 역사적 현실의 전반을 묘사하는 것이므로 지엽적인 것의 고증적 실수로써 작품의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려는 것은 온당할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³³⁾ 문제는 당시 歷史的 狀況의 再現으로 어느 정도 실감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尹知敬傳」은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단순히 소설창작의 노력절감을 위

31) 朴容九, 歷史小說入門(乙酉文庫 18, 乙酉文化社, 1974), p. 21.

32) 白樂晴, 歷史小說과 歷史意識, 創作과 批評 제 2권 제 1호(서울, 창작과비평사, 1967 봄) p. 7 참조.

33) 朴容九, 앞의 책 p. 16 참조.

한 素材의 次元이나 부분적인 하나의 모티브로 가져온 것이 아니므로 歷史 小說로 평가되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닐 것 같다.³⁴⁾

「尹知敬傳」은 중종대의 歷史的 事件을 주요 소재로 하여 당시의 歷史的 現實을 문제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갈등하는 인물들의 행위는 사회, 역사적 현실에 바탕을 둔 社會的 行爲로 이해되어야 하며, 「尹知敬傳」의 원천 내지 存在論的 基盤은 중종대의 政治的 歷史 現實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中宗代의 歷史現實을 떠나서는 「尹知敬傳」이 큰 의의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 古小說 중에는 어느 특정 시대의 역사적 현실을 문제삼은 작품이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尹知敬傳」은 小說史의 중요한 위치를 점할 수 있으며 그 가치 또한 재인식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愛情小說의 變移 過程으로서, 또는 歷史小說의 前段階的 文學現象으로서의 의의가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V. 論議의 要約과 남겨진 課題

本考는 「尹知敬傳」이 중종조의 歷史的 事實을 바탕으로 당시 歷史現實의 一面을 문제삼고 있다는 데에 주된 관심을 두고 시도되었다. 그러한 까닭으로 가장 먼저 虛構的 要素와 歷史事實을 구별해 歷史的 眞實性與否를 고찰했고, 이를 토대로 作家가 어떠한 태도 및 관점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歷史를 認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피게 되었다. 그리고 갈등양상의 분석을 통하여 「尹知敬傳」의 作品樣相을 결정하여 주는 요소는 무엇이며 作家의 진정한 問題意識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본작품의 實相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統合적으로 說明하면서, 특히 본작품의 歷史小說의 文藝美 및 存在論的 源泉과 小說史의 意義를 밝혔다.

이러한 論議結果를 좀더 구체적으로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尹知敬傳」의 作家는 역사적 사건만을 입체적으로 그려 小說化하지 못하고 歷史的 事實을 虛構的 事件과 적절히 結構시켜 소설로 形象化했다. 역사적 사실의 취급에는 年代考證上의 誤謬 등 약간의 不一致가 있었지만 대체로 實在한 歷史와 同一하게 小說化했다.

34) 이 때의 「歷史小說」이란 문학 본질적인 면의 차이에서 분류되는 하나의 장르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며, 어디까지나 편의상 붙여진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

作家는 尹任이나 金安老를 옹호하고 긍정하는 입장과 敬嬪朴氏一派 및 沈貞·南袞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歷史認識態度를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신의 사회적, 역사적 위치에서 오는 이러한 제약된 관점때문에 歷史現實을 客觀적으로 그려내지 못했고, 善惡觀念을 기준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歷史認識水準의 限界를 지니고 있었다.

本作品의 주된 葛藤은 知敬과 朴嬪一派와의 對決이었고, 이들의 갈등은 부마간택에 따른 愛情葛藤과 그 克服過程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줄거리의 基本的 展開方式은 愛情小說로서의 作品樣相을 結晶지워주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그런데, 文面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의 細細한 對話內容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들의 갈등은 부정적 政治集團에의 隸屬과, 그 예측으로부터 脫皮하여 家門과 自身の 삶을 유지하려는 신진 사대부의 生存意志 사이의 갈등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中宗代 否定的 歷史現實의 一面이 내담하고도 예리하게 폭로되고 있었다. 따라서 「尹知敬傳」의 진정한 問題意識은, 권세를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 흥제를 자행하는 부정적 정치집단의 腐散相과 언젠가는 폐망하고 말 이러한 權勢集團에의 隸屬에서 벗어남으로써 家門과 自身の 生存을 維持하려는 兩班 知識人의 삶의 智慧를 제시하자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었다.

「尹知敬傳」은 이미 一般化된 애정소설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한편으로는 讀者의 慣習化된 期待水準에 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종대 역사현실을 새로운 문제거리로 제시함으로써 讀者들의 새로운 것에 대한 期待欲求를 충족시키려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尹知敬傳」은 中宗朝라는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정치적 사회현실을 그 시대의 독특하고 구체적인 분위기 그대로 나타내는 데 어느정도 성공하고 있는 셈이었다. 따라서 歷史的 事件이나 人物을 단순히 소설창작의 노력절감을 위한 素材의 次元이나 부분적인 하나의 모티브로 가져온 것은 아니므로 歷史小說로 평가되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닌 것 같았다. 즉 歷史的 事實이나 人物을 단순한 素材의 次元에서 借用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한 歷史現實을 문제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로 드러났다. 따라서, 本作品의 存在論的 基盤은 중종대의 정치적 역사현실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을 떠나서는 「尹知敬傳」이 큰 의의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小說史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은 本小說은 그 가치가 재인식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愛情小說의 變移過程으로서, 또는 歷史小說의 前段階의 文學現象으로서의 의의가 검토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本考를 진행하면서 「尹知敬傳」의 研究는 쉽게 완결될 수 없는, 보다 중대한 문제점을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었다. 문학작품의 연구는 한 작품의 체계를 이루는 관계들에 대한 內的 分析인 理解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다 큰 사회적, 역사적 구조 속에 삽입되는 발생적 과정의 해명인 解釋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한다.³⁵⁾ 이처럼, 작품들을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현실의 기초적 구조들과 연결시키고자 할 때에 비로소 作品의 說明은 작품 자체만의 이해 수준을 넘어서서 보다 實證的인 地位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³⁶⁾ 그렇다면 本作品의 美的形式과 한 時代精神 사이에 놓인 因果性이 해명되어야 본 연구는 보다 설득력을 갖게 된다. 「尹知敬傳」은 어떤 集團意識, 어떤 精神構造를 가진 어느 時代의 產物인가 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구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학작품은 세계관이라고 불리우는 의미있는 구조, 즉 하나의 초개인적 주체의 정신적 범주들의 유형과 상응·일치하는 것³⁷⁾이라 한다면, 이러한 문제의 해결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尹知敬傳」이, 朝鮮後期 黨爭으로 인하여 언제 敗亡할지도 모르는 시대적 와중 속에서 어느 派黨에도 결속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생존을 유지해 가려는 兩班 知識人의 產物이라고 설부터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문학사적 측면에서 일종의 이상주의적, 낭단주의적인 英雄小說에 대한 반동으로 발생한 역사소설이라 하는 것도 이른 감이 있다. 그러므로, 本考에서 논의된 바는, 보다 치밀하고 예리한 안목에 의해 앞으로 이루어질 더 나은 論議를 위한 예비작업이 되기를 기대해 볼 뿐이다.

35) 뒤시앙 골드만, 문학사회학방법론(서울, 도서출판 현상과인식, 1984) p. 28참조.

36) 위의 책 pp. 123~126참조.

37) 위의 책 p. 28, p. 126참조.